【자유교회 소식】

1. 오늘은 2024년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추수 감사 주일 장식과 친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을 위해 장식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일(12월 1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깁니다.(인터뷰설교 12월 8일)
4. 다음 주 친교 식사 후에 12월 월례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와 속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내년도 속회 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병환과 개인 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590.00		
감사헌금:	$250.00		
주일헌금:	$80.00		
특별헌금:	$140.00	합계	$2,06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 일 / 예 / 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인도:이진우 목사**

예배의 부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 양 팀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찬 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성주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골로새서 3:15b-17	인 도 자
설 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진우 목사
찬 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목사

■ 다음주 기도: 정용숙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주일오전 11시 15분
주 일 교 회 학 교	주일오전 11시
아 침 묵 상	월-금 오전 8:00
Youth Group	수 오후 7시(FFC Youth)

2024년 11월 24일 2024-46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감 사 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 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팔십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 성히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아 감사한 죄

- 시인 박노해

【우리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 자유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감리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목사에 의한 일방적인 교회 운영이 아니라 교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위해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전 교인이 참석하는 월례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바른 사용을 위해 교회 재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와 교육 및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 교인 가정의 이름으로 한 명의 어린이들을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합니다. (현재 30명의 어린이를 후원)
- 가능한 불필요한 집회를 줄이고 아침묵상, 매 주일 예배, 그리고 속회 모임을 중심으로 예배와 친교를 나눕니다.
- 이중문화 가정이나 이중 언어 세대를 위해 영어권 교회인 Faith Family Church와 공동사역을 실시하여 한어와 영어로 매 주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번역한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 특정한 성경 번역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방은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우들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질병, 낙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 목사의 설교나 성경공부, 묵상에 관해 누구나 질문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할 수는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겨 자신이 하는 교회 봉사를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섬김의 도구로 삼습니다.
- 자유교회가 추구하는 믿음과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jayoochurch.com)